

양심과 자존심 가진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글 | 이은 _ 대한화학회 회장 eunlee@snu.ac.kr

과학자의 윤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3월 교수윤리현장을 제정하였고 한국학술단체연합회도 학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과 학회의 기준 설정에 착수하였다.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획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한 동안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황 교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분명히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에 위치하고 있던 과학자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논문 내용에 포함시키는 일을 자행한 행위는 매우 안타깝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자는 진실만을 발표해야 한다”

과학자에게는 진실만을 발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논문을 제출받을 때 거창한 윤리현장을 들먹일 필요가 없이 심사자들은 당연히 100% 진실만이 실려 있다고 가정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즉 과학자 각자의 양심을 믿는 것이다. 물론 차후에 결과나 결론이 틀린 것을 발견하는 경우 정정 논문으로 대체하면 불명예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1%라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치명적인 불명예를 면할 길이 없다. 과학자에게는 양심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과학자의 양심 문제는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과학계에서 허위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발각되어 학문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주 잘 나가던 과학자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최근에도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조바심이 양심을 앞지른 것이다.

과학자라면 누구든지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상도 받고 연구비도 충분히 지원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조바심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조바심은 독이 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연구 지원 체계가 과도하게 조바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 연구 결과를 제출할 때 매스컴 보도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제도가 과학자들이 매스컴을 타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과학의 성과를 홍보하는 취지가 있겠으나 정치적인 수완이 있고 자기 선전에 능숙한 과학자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거의 매일 “세계 최초로 무엇을 발견하여 무슨 병을 고친다”거나 “무엇을 만들어 무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등의 매스컴 보도를 접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즉각 먹혀들어가기 위한 제목을 써야 하는 매스컴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지만 매스컴 타는 과학자들을 양산하고 싶은 관료적 체제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

과학자들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자존심이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 과학자들은 자존심으로 산다. 과학자는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연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과학자 동료들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과학에 국경이 없듯이 과학자에게도 국경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가 병을 고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은 과학 연구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

원할 때 큰 부분이 목표 지향적으로 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요즘 과도하게 목표 지향적인 기술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결눈질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연구에 정진하는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매스컴이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세계를 상대로 진리 탐구에만 전념하는 참과학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존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과학자 자존심 회복돼야 이공계 위기 극복

대한민국 건국 후 현대 과학의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반세기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였다.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를 이끈 정부의 연구 지원 체제도 칭찬을 받을 만하다. '과학입국'이 국가적 과제였고 어린이들의 대다수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면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 소수의 스타 과학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대학 연구실이나 공공 및 민간연구소에서 '이공계의 위기'를 실감하게 된다. 이공계를 지원하는 인적 자원이 질적 양적으로 저하하여 연구의 저변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공계의 위기'의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과학자의 자존심 박탈이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는 과학자들의 자존심 회복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연구소의 과학자들이었다. 그 후 공공연구소에서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년이 단축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고, 또 봉급체제도 변하여 과학자는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좀더 효율적인 연구 관리 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였고 과학자들의 조바심은 훨씬 커지고 자존심을 가질 수 없는 체제로 변한 것이다.

'이공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어도 국책연구소에서는 정년을 더 연장하고 봉급체제도 개선하여 과학자의 길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다시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자의 본분을 유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비 지원사업도 관료적 대형 기획사업에서 벗어나 과학자 개인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선진국형으로 바꾸고 과학자들이 서로 심사하는 동료심사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형 국책 과제 위주의 정부 정책 때문에 소외되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자존심을 찾아 주어야 한다. 과학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시 위주의 한 건 주의에서 벗어나 많은 과학자들이 자존심을 갖고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에 몰두하도록 해야 한다.

자존심을 가진 과학자는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글쓴이는 서울대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화학회 학술상, 한국과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